

3. 객관적 서술 / 주관적 서술

유형 : 역대 수능 모평에서 ‘객관적 서술/주관적 서술’을 묻는 문제 총집합

수능, 모평 출제 횟수 : 8회+α

출제 경향 : 지문에 A라는 내용의 서술 내용이 있을 때, 이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했거나 A라는 내용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을 때는 주관적 서술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문에 ‘수추는 흥하고 추한 물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수추가 잘생긴 미남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추는 흥하고 추한 물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진술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서술이다.

사례 1. 2011 06 모평 28번 문제 ③번 선지

지문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듯한 느낌 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걷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햇볕 속으로 나온 음식 식물처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선지

③ 답답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X)

※ 분석 :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등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지문은 ‘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주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례 2. 2010 수능 38번 문제 ③번 선지

|지문|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연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찬찬 말을 웅점이는 일적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점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너만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들여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선지|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나’는 ‘웅점이’라는 인물을 주체 의식을 가진 본받을 만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나’의 주관이 반영된 평가이다. 다른 누군가는 ‘웅점이’를 아는 게 없는 명칭한 인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 3. 2008 09 모평 40번 문제

|지문|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 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쉬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 이상, 「날개」 -

* 회탁의 : 회색의 탁한.

|선지|

나.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금붕어를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구속의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나’의 주관이 반영된 진술이다. 다른 누군가는 금봉어는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역동성과 활기 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 4. 2006 09 모평 44번 문제 ④번 선지

[지문]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심과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쯤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선지]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조선 농민들의 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는 공부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또 ‘나’는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나’의 주관이 반영된 진술이다. 누군가는 조선 농민들의 현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지주의 입장에서 소작인들이 맨날 농땡이 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1999수능 45번 문제 ②번 선지

[지문] (가) 방자 하릴없이 충충충충 갔다 나오는데, 이 놈이 도련님보다 더 쉼게 울며 나오는데,
 “어따, 우는데 우는데.”
 “이 자식이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나.”
 “누가 그렇게 울겠소. 춘향이 나와 우는데, 도련님 오시면 둘이 들어간다고 땅을 한 길은 넘게 파 놓고, 잔디를 어찌 쥐어 뜯었던지 밥을 하면 세 끼니는 해 먹게 뜯어 놓고 우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겠습디다.”

[선지] ② 상황에 대한 방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드러난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방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방자는 준향의 서러움을 오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방자의 주관이 반영된 진술이다.

사례 6. 1996 수능 33번 문제

주림과 피곤에 지친 우리들은 이러한 풍경을 바라다 볼 기력도 없이 주저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 세 동갑 중 가장 치밀하고 슬기있는 것이 상운이다. 치밀이라고 할까 또는 슬기라고나 할까 어떻든 그 날 아침 불안과 절망에 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상운이었다.**
 “됐어 됐어! 자 이것 봐……. 이것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아…….”
 그가 중얼거리며 선창에서 끌어당길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야! 살았다. 살았어…….”
지문 순복이가 이런 소리를 칠 때야 겨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물이다…….
 그물……. 내 마음 속에서도 그들모양 생기가 꿈틀거렸다.
 매듭과 매듭으로 그물이 짜여 있듯이 새로운 불안이 우리들의 가슴을 얽어 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을 친다는 것은 겨우 투망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큰 그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통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정한숙, IYEU 도 -

선지 ⑤ 서술자가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지문에 상운이가 치밀하고 슬기로운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나’의 주관이 반영된 평가이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상운이를 명칭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7. 2013 06 모평 26번 문제 ⑤번 선지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선지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X)

※ 분석 : 위 지문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지문에서 ‘가객’이 토나올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나’의 주관이 반영된 평가이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가객’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절세꽃미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 8. 2013 06 모평 39번 문제 ①번 선지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으로서 동진 광업소 소장인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 대는 필름들.

소장 :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다. 앞으로 2, 3 일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선지|

① 홍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X)

※ 분석 : 홍 기자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김창호 구조 사건’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하게 할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홍 기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홍 기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는 진술이다. 다른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김창호 구조 사건’은 세금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 기자의 첫 번째 대사는 객관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4. 계절감

유형 : 역대 수능 모평에서 ‘계절감’을 묻는 문제 총집합

역대 수능, 모평 출제 횟수 : 9회+α

출제 경향 : 수능, 모평에서 계절적 배경이나 계절의 변화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놓고 ‘춘 춘 하 하 추 추 동 동’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직접적인 계절적 배경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이나 모평에서 계절감은 다음과 같이 각 계절을 대표하는 소재로 파악하면 된다.

- ☞ 봄 = 아지랑이, 꽃피는 계절
- ☞ 여름 = 녹음(우거진 숲), 과일이나 채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 ☞ 가을 = 추풍(가을 바람), 단풍, 낙엽, 황운(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 과일이나 채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 ☞ 겨울 = 매화, 눈, 얼음, 흑한, 성애꽃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의 2연에는 ‘낙엽’이 나오고 3연에는 ‘눈’이 나온다면 계절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된다.

사례 1. 2011 수능 27번 문제 ③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필마(匹馬) <u>추풍</u> 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u>적설</u> (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선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u>계절감</u> 을 드러내고 있다 (○)	

※ 분석 : ‘추풍(가을 바람) =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 적설(쌓여 있는 눈)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겨울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사례 2. 2011 09 모평 15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p>(나) 적막강산</p> <p style="text-align: right;">- 백석 -</p> <p>오이밭에 <u>벌배채*</u> 통이 지는 때는 / 산에 오면 산 소리 /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 큰솔밭에 <u>빠꾸기</u> 소리 / 잔솔밭에 <u>덜거기*</u> 소리 벌로 오면 /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 갈밭에 갈새 소리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p>
선지	<p>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u>계절적 배경</u>을 드러낸다. (○)</p>

※ 분석 : ‘배추가 여물어 가는 때’ 즉, 과일이나 채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은 여름이나 가을이라고 보면 된다.

사례 3. 2012 수능 32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p>(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 구두 밑바닥에 /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u>보리</u>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 <u>살얼음</u>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u>썩굴 상여집</u> <u>흰 눈</u> 속을 넘을 때도 /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p> <p style="text-align: right;">-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p> <p>(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해마다 <u>봄바람</u>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p> <p style="text-align: right;">-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p>
선지	<p>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u>계절적 배경</u>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X)</p>

※ 분석 : (가) 시의 ‘겨울 보리, 살얼음, 흰 눈’ 등의 소재는 겨울을 나타내고 (나) 시의 ‘봄바람, 꽃 피는 사월’ 등은 봄을 나타낸다. 즉, (가)와 (나)의 계절적 배경은 다르다.

사례 4. 2007 수능 41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미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선지|

① 봄빛이 완전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X)

※ 분석 : 지문에 ‘눈’이라는 겨울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문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 5. 2007 수능 52번 문제 ①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입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 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 -

|선지|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선지|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 분석 : (가)는 ‘추풍낙엽(가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 (나)는 ‘가을 달(가을), 매화(겨울), 설중(겨울)’의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사례 6. 2006 수능 19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선지|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O)

※ 분석 : 지문에서 ‘몇 송이 눈’이라는 겨울의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쓰고 있다.

사례 7. 2004 수능 52번 문제 ④번 선지

|지문|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 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평무 : 풀이 우거진 들판. * 취병 :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반송 :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선지|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O)

※ 분석 : 지문에서 ‘춘만(봄이 늦음) → 여름 경’의 계절 변화가 드러난다. 위 지문과 같이 대놓고 ‘봄(춘) →

여름'이라고 계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사례 8. 2007 06 모평 39번 문제 ③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 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과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척촉: 철쭉.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선지|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 분석 : (가)에서 '매화, 빙자옥질, 아치고절, 눈 속, 눈, 백설' 등의 시어를 캐치할 수 있다면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이 계절적 배경이다'라는 선지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빙자옥질'이나 '아치고절'은 매화의 지조, 절개를 일컫는 말로 '매화'는 늦겨울이나 초봄에 개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계절감'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아지랑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오름 내어 펴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되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冰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 -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선지|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O)

※ 분석 : ‘아지랑이, 녹음, 황운, 빙설’의 시어를 캐치할 수 있다면 ‘(나)의 계절적 배경이 사계절이라는 선지’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지랑이’는 봄을, ‘녹음(푸른 잎이 우거진 숲)’은 여름, ‘황운(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은 가을, ‘빙설(얼음과 눈)과 옥해은산(눈 덮인 들판과 산)’은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사례 9. 2014 국어 예비평가 B형 40번 문제 ②번 선지

|지문| (가)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선지|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O)

※ 분석 : 위 지문에서 대놓고 ‘봄’이 드러나 있으므로, 계절적 배경인 ‘봄’을 파악할 수 있다.

|지문| (나) 새벽 시내버스는 /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관원 파출부 실업자의 / 입김과 숨결이
밤에간 은밀히 만나 **피워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 최두석, .성애꽃.-

|선지|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O)

※ 분석 : 위 지문에서 ‘업동 혹한, 성애꽃’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